

2026년은 선진 국채시장의 원년, 국채시장의 더 큰 도약을 위해 노력할 것

- 구윤철 부총리, 제12회 「KTB 국제 컨퍼런스」 개최사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핵심 인프라인 국채시장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강조
- “내년 4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앞두고 시장 기반(인프라) 정비에 만전”
- “시장 전담 정부조직 신설, 채권발행기관 협의체 운영 등 위험(리스크) 관리 체계 강화”
- “개인투자용 국채 3년물 도입, 장기물 퇴직연금 계좌 매입 허용 등 제도개선”

기획재정부는 12월 11일(목) 15:00, 콘래드 서울에서 연합뉴스와 공동으로 「제12회 KTB(Korea Treasury Bond)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영상 개최사를 통해 내년에도 주요국 통화정책 방향, 통상환경 변화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으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본격 시작되는 4월부터는 우리 국채시장이 획기적인 성장 기반을 다지게 될 것이라 밝혔다. 이러한 도전과 기회가 공존하는 환경 속에서 2026년이 ‘선진 국채시장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국채시장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우선,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따른 외국인 투자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경과물 거래 활성화를 위한 재발행, 시장조성 제도 등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국채시장의 위험(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내에 시장동향 분석 및 대응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한편, 국채·공사채 등 채권 발행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발행계획과 시장 안정방안을 조율하겠다고 하였다.

나아가, 우리 국채의 근본적인 수요기반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3년물을 신규 도입하고 정기적인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한편, 10년 이상 장기물은 퇴직연금 계좌를 통한 매입을 허용하는 등 제도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재정증권·원화외평채 등 단기 국채를 활성화하여 시중 단기자금을 국채 수요로 적극 흡수하고 이자 비용 절감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는 세 가지 세션으로 진행되었으며 세션1에서는 금융 관련 협회(ASIFMA), 연구기관(자본시장연구원), 홍콩금융관리국(HKMA)에서 발제자로 나서 최근 금융시장의 디지털 혁신에 따른 국채시장의 변화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세션2에서는 국제기구(IMF), 세계 투자기관(J.P. Morgan)에서 발제자로 참여하여 2026년 세계 경제여건과 국채시장 전망에 대해 논의하였다. 세션3에서는 FTSE 러셀, 세계 투자기관(Mitsubishi UFJ AM)에서 발제하여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과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우리 국채의 위상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어서 진행된 기획재정부의 정책발제 세션에서는 내년도 국고채 발행 계획이 논의되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국고채 총발행 한도 225.7조원과 관련하여, 시기별로는 상반기에 55~60%를 발행하고, 연물별로는 2~3년물 35%, 5~10년물 30%, 20~50년물 35% 내외로 발행하되, 시장 불확실성에 대한 탄력적 대응을 위해 연물별 비중의 관리목표 범위를 $\pm 5\%p$ 로 설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내년도 국고채 발행계획 및 정책방향의 세부 내용은 이달 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제시된 전문가, 시장참가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참고하여 향후 국채시장 운영에 반영해나갈 계획이다.

- <참고 1> 제12회 「KTB 국제 컨퍼런스」 행사 개요
 <참고 2> 부총리 개회사

담당 부서	국고국 국채과	책임자	과 장	이근우 (044-215-5130)
		담당자	사무관 사무관 사무관 사무관 주무관	이찬호 박가영 최나은 유영한 조성현



참고 1

제12회 「KTB 국제 컨퍼런스」 행사 개요

□ 일시 / 장소 : '25. 12. 11.(목) 15:00~18:00 / 콘래드 서울

□ 참석자

- (주최기관) 기획재정부, 연합인포맥스
- (국내기관) 국채 PD사, 유관기관(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한국증권금융), 보험사·자산운행사 등 장기투자기관
- (해외기관) 글로벌 투자은행, 국제기구, 국제예탁결제기구, 홍콩금융관리국, FTSE Russell 등
- (연구기관) KDI,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국제금융센터 등

□ 주제 : “KTB, 새로운 기회와 도전”

< 행사 진행계획 >

시간	구분		참석자	비고	
15:00~15:08 (8분)	[개회식]				
	개회사	5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영상 송출	
	인사말	3분	연합인포맥스 대표이사	-	
15:08~15:10 (2분)	[장내 정리]				
15:10~16:00 (50분)	[세션1] 금융혁신과 국채시장 패러다임의 전환				
	진행		합준호	연세대학교 교수	
	발제	10분	Philippe Dirclox	ASIFMA (Managing Director)	스테이블코인과 국채시장의 영향
		10분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대한민국의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정책과 스테이블코인 규제
		10분	Georgina Lok	홍콩금융관리국 (Head of Market Development)	홍콩 토큰화 국채 발행 사례 소개
	토론	20분	진행자, 발제자		
16:00~16:40 (40분)	[세션2] 2026 글로벌 경제여건 및 국채시장 전망				
	진행		합준호	연세대학교 교수	
	발제	15분	Athanasios Vamvakidis	IMF (Deputy Director of Monetary and Capital Markets Department)	세계 경제와 시장 동향
		15분	Sajjid Z Chinoy	J.P. Morgan (Asia Chief Economist)	글로벌 경제 전망과 한국 채권 시장에 대한 시사점
	토론	10분	진행자, 발제자		
16:40~17:00 (20분)	[Coffee break]				
17:00~17:50 (50분)	[세션3] WGBI 편입과 한국 국채시장의 도약				
	진행		김진욱	CITI 수석이코노미스트	
	발제	15분	Nikki Stefanelli	FTSE Russell (Head of FICC Index Policy)	한국의 WGBI 편입 로드맵
		15분	김영진	Mitsubishi UFJ (Chief Fund Manager)	글로벌 금융시장 내 한국 국채의 위상
	토론	20분	이성호	NH투자증권(본부장)	+ 진행자, 발제자
			Zhanying Li	Euroclear (Chief Product Officer)	
17:50~18:00 (10분)	[정책발제] 2026년 국고채 발행계획 및 정책방향				
	발제	10분	기획재정부	2026년 국고채 발행계획 및 정책방향	

제12회 KTB 국제 컨퍼런스
(2025. 12. 11)

개 회 사

2025. 12. 11.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구 윤 철

1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입니다.

제12회 KTB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해주신
국내외 전문가, 시장참가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뜻깊은 이 행사를 함께 준비해 주신
연합인포맥스 황정욱 대표이사님,
그리고 관계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 2025년 국채시장 평가

올해 우리 국채시장은
무역갈등을 비롯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우리 경제의 양호한 펀더멘털과 수요기반 위에서
두 차례 추경으로 늘어난
226조원의 국고채 발행을 안정적으로 소화하였습니다.

외국인 국고채 투자도
사상 최대 규모인 50조원 이상 순유입되어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 국채시장의 모든 참여자들이
함께 노력해 이뤄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6년에도 국채시장을 둘러싼 여건은 결코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국 통화정책 방향, 통상환경 변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내적으로도 금리흐름에 대한 시장 기대가 조정되는 가운데, 적지 않은 규모의 채권이 발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편, 탄탄한 경제·재정 펀더멘털이 유지되는 가운데,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본격 시작되는 4월부터는 우리 국채시장이 획기적인 성장 기반을 다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도전과 기회가 공존하는 환경 속에서 정부는 2026년이 ‘선진 국채시장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국채시장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먼저,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따른 외국인 투자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시장 인프라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경과물 거래 활성화를 위한 재발행, 시장조성 제도 등을 시행하고 해외투자자들의 접근성, 결제편의성 제고를 위한 외환·자본시장 제도 개선도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국채시장 리스크 관리 체계도 강화하겠습니다.

정부 내에 시장동향 분석 및 대응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한편, 국채, 공사채 등 채권 발행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발행계획과 시장 안정방안을 조율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국채의 근본적인 수요기반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개인투자용 국채 제도를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3년물 도입과 정기적인 이자 지급을 통해

만기 보유 부담과 환금성 제약을 완화하는 한편,

10년 이상 장기물은 퇴직연금 계좌를 통한 매입을 허용하여 국민들께서 연금형 장기 국채에 투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재정증권, 원화 외평채 등 단기 국채 활성화를 통해 시중 단기자금을 국채 수요로 적극 흡수하고, 이자비용 절감을 통한 재정운영 효율화도 도모하겠습니다.

4 마무리 말씀

국채시장은 우리 금융시장의 안전판(safe haven)이자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관계기관, 전문가, 그리고 시장참여자 여러분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우리 국채시장의 더 큰 도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많은 지혜와 고견을 들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